

추석가정예배 - 필요의 사랑과 베품의 사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22:37~39

사랑의 성격

누구나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을 정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간 갈등도 사랑의 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은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다른 한 쪽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야?”라고 합니다. 결국 정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심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은 5장 4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두 가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베품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남에게 주는 사랑이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보다 강하고 더 나은 자아를 전제로 합니다. 반대로 필요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느끼는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구하고, 받아내며, 돌봄을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갖는 사랑은 베품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품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필요의 사랑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도 이와 같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웃, 부부와 나누는 사랑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100% 필요의 사랑, 100% 베품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정도가 다를 뿐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베품과 필요의 사랑을 함께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피차 복종하라(엡 5:21)고 말한 이유입니다.

물론 사랑의 방식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방식은 ‘전적인 헌신’,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의 방식은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남편은 ‘베품의 사랑’이 더 커야 하고, 아내는 ‘필요의 사랑’이 더 커야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부부는 ‘베품의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기에 ‘베품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 뿐 아니라, ‘필요의 사랑’을 해야 될 대상에게 ‘필요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동일하죠.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를 상대에게 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를 상대에게 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필요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필요는 무한한데 유한한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리가요. 여러분이 지금 가족에게 하는 실망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전장’에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은 영혼을 의미하고, 뜻은 지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강조법입니다. 이 사랑을 수행하기 위해 전투하라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것에는 여러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바로 이 전장에 뛰어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C.S.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사랑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줘서는 안됩니다. 또 뭐든 얹히고 얹힌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놓고 안전하게 잠궤 놓으십시오. - C.S. 루이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전쟁과 같은 사랑에서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사랑의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필요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사랑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9~30)” 필요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전에 무겁게만 느껴지던 사랑의 짐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희가 당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필요를 다른 이에게 구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풍성히 베푸시는 베푸는 사랑을 누리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